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1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4월 4일 (음력 3월 7일) 화요일

내국인 카지노 유치 지자체간 경쟁 치열

전남 이어 경남도 추진…F1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남도의 카지노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핵심사업의 하나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도 카지노 유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 전남 유치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대정부 설득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J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F1(포뮬러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F1대회의 성공을 위해 F1특별법안을 마련했었다. 전남도의 F1특별법안에는 J프로젝트 지역 내의 내국인 카지노 허가와 경차(競車)사업 추진 등이 담겨져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추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최근 '관광진흥을 위해 (남해안관광벨트 안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초안)을 만든 데 이어, 입법 활동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남해안발전지원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허가조항이 담긴 법안 18조를 삭제해 줄 것'을 서류를 통해 공식 요청했다.

전남도는 경상남도에 전달한 문건에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는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전남도에 이 카지노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해부터 F1특별법을 통해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유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또 다른 카지노 유치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혼선을 빚고 전남도의 장기 발전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지역 발전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정지역에만 허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지역 낙후도 등을 따져볼 때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반드시 전남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상남도 측에 내국인 카지노 허가 조항을 특별법 초안에서 삭제토록 요청한 만큼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내국인 카지노 유치가 J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보고, 의원입법을 통한 F1특별법의 조속 제정과 카지노 유치를 위한 대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부산시·전남도와 공동으로 남해안 종합개발을 목표로 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이 프로젝트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법안 제정은 경남도가 책임지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대차 경영승계도 수사

檢 "비자금과 관련없는 별도 단서 포착"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등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검찰의 현대차 수사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포착된 단서를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 수사기획관은 비자금과 별도로 포착된 단서가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의혹들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해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의 로비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비자금 조성 및 용처 외에 그룹의 모든 비리 의혹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현대차그룹 관련자들의 출국금지와 소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수백억원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현대차그룹 임직원 10여명 보다 출금 대상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 29년만의 귀향

▶관련기사 8면

미국 NFL 수퍼볼의 영웅 하인스 워드가 미국 애틀랜타발 대한항공 KE 036편을 통해 3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어머니 김영희씨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N-POOL중앙일보=임현동기자

전남 5쌍중 1쌍 '국제결혼'

작년 2,095건 전체의 18.5%…전국 최고

전남이 16개 광역 시·도 중 국제결혼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국제결혼 수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발표한 '2003~2005년 전국 249개 시·군·구별 호적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지난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2천95건(전체 결혼 1만1천326건)으로 국제결혼비율이 18.5%에 달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새로 결혼한 5쌍의 신혼부부 1쌍은 국제결혼인 셈이다.

전남은 2003년만 해도 국제결혼비율이 8.5%로 16개 시·도 중 5위에 그쳤으나 2년만에 국제결혼 비율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북의 국제결혼비율도 2003년 7.8%에서 2005년 17.6%로 광역단체중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제결혼비율은 전남 지역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 총각들이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단체별 국제결혼비율에서도 함평군이 37.6%로 전국 249개 시·군·구중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서울 종로구로 67.5%나 되지만 이는 주한 외국대사관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 때문이며, 2위는 충북 보은군으로 40.0%에 달했다.

이와함께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혼전 국적은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또 광주의 지난 해 국제결혼비율은 8.2%(국제결혼수 501건)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DJ 인생역정 한눈에 본다

김대중센터 기념관 설치 80평 규모…이달말 개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공간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들어선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4일부터 센터 1층 콘코스홀에 80평 규모의 김대중기념공간 설치작업을 시작한다. 정식 개관은 이달말로 예정되어 있다.

김대중기념공간은 중앙에 설치된 김 전 대통령 흉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정치가 김대중 ▲인간 김대중 ▲노벨평화상 및 남북정상회담 ▲국민의 정부 ▲동영상 및 각종 기록물 ▲소장품 및 기념물 등 6개 존(zone)으로 나눠 그가 걸어온 민주화와 인생 역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된다.

전시 내용물은 노벨평화상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미지와 텍스트, 노벨평화상 증서 및 메달(복사본), 관련 서적, 시사 잡지, 목판 어록, 핸드 프린팅, 친필 휘호 등 각종 기념품 전시공간도 들어선다.

특히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소장해왔던 월계수 모양의 '평화의 나무'를 기증받아 새롭게 제작하고 있다. 스틸 재질로 된 이 평화의 나무(높이 3m, 폭 2m)에는 노벨평화상 메달 홀로그램과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담은 동영상 모니터가 부착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사 과 문

當社의 물류 운송업체인 극동콘테이너(주)와 車主間의 再契約 체결과정에서 촉발된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光州市民 여러분과 특히 하남산업단지內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인근 입주업체에 본의 아니게 큰 불편을 끼친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 삼성광주전자 任職員 一同은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하여 地域社會에 기여하고, 光州市民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企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三星光州電子 任職員 一同